

“북미정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 엄중 심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올해보다 10.9% 인상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두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의 오차드 호텔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렉처’(연설)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내심을 취하고, 적절히 압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견을 들려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북미) 두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과거와 다른 북미 간 화협상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북미 간에 실무급의 대화, 북한의 핵에 대해 실무

문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에서 “실무협상 과정 우여곡절 있어도 결국 약속 지킬 것 북미, 전혀 다른 방법 접근 실무협상 등 ‘툭다운’ 방식 북미 회담 결과, 비핵화 체제안전 보장 맞교환”

급 대화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대화로 합의했다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어그러진 일도 여러 번 있었다”며 “그래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북미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라며 “북미 간에 70년 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다가 북미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것이자, 북한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렇게 두 정상이 직접 국제

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툭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북미 정상 간의 큰 틀의 합

의를 이뤘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낚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나아가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 개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번 인상을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 쯤에 최저임금 상안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매립호안 축조 오늘 착공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가 오는 16일 착공돼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13일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 조기개발에 필요한 가호안 845m, 매립호안 800m, 배면매립호안 1245m 축조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추진으로 새만금 신항 부두개발과 항만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설계 진행 중인 923억원 규모의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도 설계 완료 후 2019년 발주해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 가속화로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 바로잡습니다

7월 12일자 9면 ‘청정장수 이미지 큰 타격’에서 장수한우프라이즈를 ‘용인농특산물 직매장’으로 수정합니다.



전북도가 13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정부포상을 전수 시상했다.

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 시상

근정포장 1명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명 선정

전북도는 13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정부포상을 전수 시상했다.

정부는 지방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북도 유공자에게 근정포장 1명,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명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 근정포장 수상자인 신형삼 주무관(전북도 지역경제과)은 ‘군산 산업단지 우수지에 국내 최대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과정에서 미 공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멀리 있지 않다. 수상하신 분들처럼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일이 규제개혁이다.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오늘 수상자들이 모든 공직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정 핵심정책·전략산업·신산업 등의 규제개혁과제를 191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오는 10월 네거티브 규제 분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주관으로 도내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 부과

납기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미납시 첫 달은 3% 가산금
이후엔 매월 1.2%씩 등 부과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증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지난 13일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79만건, 1,3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51억원보다 127억원(10.1%) 증가한 액수로 단독개발주택가격 상승(3.5%), 공동주택가격 상승(2.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3%)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523억원, 군산시 286억원, 익산시 207억원 순으로 부과,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시군별로 정한 일시부과한도 기준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